



유럽 주요국 보험시장의 회복세와 규제 현안

김진억 수석담당역

- 유럽 주요 보험시장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은 최근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거나 보험영업 손익 및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음.¹⁾
 - 이탈리아의 2014년 총보험료 수입은 2013년에 이어 연속으로 두 자리 수인 20.7%의 성장을 하였고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6.1%, 2.7% 성장하는 등 유럽 주요 보험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스페인의 경우 2014년 총보험료 수입이 0.4% 감소하였으나, 이는 지난 3년간 가장 작은 감소세였으며, 시장축소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저금리의 지속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금융상품대신 대체 투자상품으로 생명보험 상품 구매를 늘리면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함.
 - 생명보험 산업의 경우,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예금, 펀드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에서 생명보험 저축성 상품으로 투자를 늘리면서 강한 회복세를 보임.
 - 이탈리아는 분리펀드와 변액보험이 결합된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생명보험 수입이 29.8% 성장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생명 및 연금보험의 호조로 8.4% 성장하였으며, 독일도 인구동태적 요인으로 생명보험과 연금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3.2% 성장하였으나 스페인의 경우 2011년 일시납 저축성보험 판매 급등의 여파로 2.3% 감소함.
 - 다만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과거 상대적 고금리로 판매했던 상품으로 인한 금리리스크는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에 신계약 상품의 경우 변액보험 형태로 판매에 주력하고 있음.
 - 특히 독일의 고정금리 형태의 전통적 보험상품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보유계약이 남아 있음.

-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각국 경제 상황에 따라 회복세가 소폭에 그치나 손해보험회사들이 경영성과의 질적 개선에 집중하고 재난발생도 많지 않아 수익성 제고가 전망됨.

1) Best's Special Report(2015. 10), "European Insurance Markets Display Early Recovery Signs but Regulatory Issues Brew".

- 손해보험 보험료 수입은 전체적으로 이들 국가의 경제가 호전되면서 안정적 성장을 보임.
 - 독일의 손보산업은 양호한 경제상황으로 생보산업보다 높은 3.3%, 프랑스는 자동차보험 및 특히 주택보험의 호조로 2.0%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스페인도 생보산업보다 높은 1.2% 성장함.
 -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생보산업과 달리 자동차보험과 해상보험의 경쟁격화로 가격이 조정되면서 3년째 감소세를 보여, 2014년은 2.7% 축소됨.
- 한편 저금리로 투자수익률 제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영업에 의한 당기손익관리에 집중하면서 가격 조정이 지속됨.
 - 특히 이탈리아는 3년째 손해보험 보험료 수입이 축소되면서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인 자동차보험과 해상보험에 대한 가격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스페인의 경우 가격하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경제회복과 함께 자동차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보험영업손익 개선이 전망됨.
- 최근 유럽지역에서 큰 재난이 거의 없어 보험영업손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독일의 경우 2014년, 폭풍으로 인한 손실이 줄어들면서 보험영업손익이 개선되었음.
 - 대조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날씨관련 보험금 청구액이 지난 20년 평균을 대폭 상회하였으나 주택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전체 합산비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됨.
 - 스페인의 경우는 공적 기관인 보험 보상 컨소시엄이 자연재해 초과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영업손익이 안정적인.

■ 한편 각국 보험관련 규제는 유럽 보험시장의 성장과 재무건전성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이탈리아에서는 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D.d.I. Concorrenza, 블랙박스 및 알코올탐지 장치 설치 의무화 포함)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통과시 보험요율이 하락이 예상됨.
- 스페인의 경우 상해보험의 손해액 평가와 관련한 새로운 법(baremo)이 시행되면서 보험금 산정의 확실성과 명확성 제고가 예상되나 동시에 상당한 보험금 증가도 전망되면서 보험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프랑스의 새로운 소비자보호법(loi Hamon)²⁾은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대출보험 등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회사에 혼란과 경쟁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건강보험 시장에서 전국 전문직 협약(ANI)이 발효되어 2016년 1월부터 기업들은 단체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보험회사들에게 경쟁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
- 독일은 퇴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높일 방법과 이를 기업에 강제화할 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움.
 - 한편 2014년 통과된 생명보험개혁법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계약자 배당의무를 감소시키고 신계약에 대한 최저보장이율을 낮출 수 있게 함으로써 보험산업 지급여력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됨.

(A.M. Best)

2) 동법에 따라 보험소비자는 첫 번째 계약양당일(the first anniversary date) 이후에도 수수료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됨.